

人文論叢

81권 3호

2024년 8월

기획 논문

기획의 말

/

지역학 연구의 모색: 시흥의 근현대, 역사학의 시선에서 바라보다

특정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목표로 하는 지역학은 한국에서 지방 자치 시대의 화두가 된 지 오래지만, ‘중앙’과 차별화된 ‘지역’만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는 중앙 중심의 사료 편제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전문 연구자의 중앙 중심적 사고와 지역사 및 지역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결여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과학계에서는 다중 스케일(scale)의 관점에서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넘어설 것을 제안한 바 있고,¹ 각 지역 대학에서 다양한 ‘글로벌(global)’ 연구사업들이 진행 중이지만 글로벌주의, 국가주의, 로컬주의를 넘어서는 다중 스케일적 사고와 실천이 실질적 연구 차원에서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를 묻는다면 대표적 성과를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사 연구에 대한 고민은 2022년 7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도시지원 사업, ‘역사와 함께 호흡하는 생태 인문도시 시흥’의 연구책임자를 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시민에게 확산함으로써 인문학을 대중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자리하고 있는 시흥은 1989년 시로 승격된 이후 2022년 인구 50만을 넘어 전국에서 17번째

1 박배균, 김동완 편(2013), 『국가와 지역: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알트.

로 ‘대도시’ 지위를 획득했지만, 지역사회는 인천, 안산, 광명·안양에 접한 3개 중심 권역의 원심력 문제와 신도시 개발로 유입된 주민들의 부족한 지역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외부인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고민을 온전히 이해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2022년 10월,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첫 번째 인문주간 학술대회로, “시흥이 걸어온 길: 시흥의 역사, 문화, 사상”을 개최하고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시흥 지역의 변화상을 살펴보면서 지역사회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시흥(始興)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 금천현이 정조대인 1795년 시흥현으로 개칭되며 등장한 것이었다. 원래 시흥현 관아 자리는 오늘날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었고, 시흥현은 1895년 시흥군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1895년의 시흥군과 1989년의 시흥시 영역은 조금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 통폐합과 ‘대경성’ 계획에 따라 과천시, 안산군 일부와 영등포 지역까지 포괄했던 시흥군의 영역이 1960~80년대 서울의 확장에 따라 영등포구에 편입되거나 안양시, 광명시, 과천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로 승격,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1989년, 남은 지역인 소래읍, 군자면, 수암면에 설치된 것으로 과거 부천군의 소래권과 안산군의 군자권, 수암권이 오늘날 시흥시의 근간이 된 셈이다.

따라서 오늘날 시흥시에 남은 것은 시흥(始興)이라는 지명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흥시는 서울의 급속한 팽창과 위성도시 개발에 따라 이리저리 쪼개지고 합쳐지며 전통적인 시흥군과는 전혀 무관한 그야말로 새로운 도시가 되었다. 따라서 3개 중심 권역의 원심력 문제나 부족한 지역 정체성 문제는 시흥시의 태생적 특성에서 기인한 그 자체로서 독특한 하나의 ‘지역성’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인문주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글들은 오늘날의 시흥시 권역을 대상으로 전근대 시기를 다루었고 『규장각』 63호에 기획논문으로 게재되었다.²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에도 두 번째 인문주간 학술

대회로 “근현대 시흥의 변화와 발전”을 기획했고, 인문학연구원의 집담회 지원을 받아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추후 수정·보완을 거쳐 이번 『인문논총』에 게재하게 되었다. 각각의 글들은 근현대 시흥지역의 변화상에 주목하여 개신교의 전래과정, 1910년대 초반 석장둔 인근 간척지 소유양상, 1914년 조선총독부의 경기도 군·면 통폐합 논의, 1920~30년대 소래지역의 성쇠, 1970~80년대 신천연합의원 설립과 시흥지역 도시빈민 정착공동체 운동을 조명하였다.

김혜원의 「19세기 말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과정 연구」는 시흥지역의 개신교 전래 과정에 관한 기존 서사를 확장·보완하려는 시도이다. 기존 서사가 “김동현에 의한 무지내교회의 설립”과 “서울 이남 감리교 선교 거점으로서 시흥지역”을 핵심으로 했다면, 이 글은 감리교 선교부의 선교 정책과 활동이라는 하향식 흐름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앙활동이라는 상향식 흐름이 김동현이라는 인물을 매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19세기 말 시흥지역의 개신교 전래 및 확산이 다수 개신교 교단의 한국 진출 및 상호경쟁 과정에서 감리교가 채택한 교육기관 중심의 선교 정책과 감리교 선교부의 구역 제도에 따라 설정된 공주·수원 구역의 가파른 성장 및 시흥지역의 교세 확장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감리교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에서 수학한 김동현과 그를 도와 토착 교회 설립에 일조한 무지내 경주 김씨 일가, 그리고 같은 시기 무지내교회와 함께 시흥지역의 교세 확장을 이끈 인근의 덕고개, 삼막골 주민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 역동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규명하였다.

-
- 2 『규장각』 63호에 게재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한지선(2023), 「원삼국~백제 한성기 시흥 지역 집단의 존재 양상과 변화」; 김원혁(2023), 「조선초기 近畿 士族의 정착과 존재 양상: 시흥지역 사족가문을 중심으로」; 장래건(2023), 「姜希孟의 『衿陽雜錄』 저술 의도와 ‘士’로서의 정체성」; 강나은(2023), 「15~16세기 사족의 혼인 네트워크와 지속여부: 시흥 세거 사족 姜碩德-姜希孟 가계를 중심으로」; 정승화(2023), 「조선후기 경기 지역의 재정 운영과 시흥」.

김한빛의 「1910년대 초반 석장둔 인근 간척지 소유 양상」은 현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소위 석장둔 인근 간척지의 1910년대 소유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간척지에서 토지 소유가 소수 지주에게 집중되는 양상과, 비옥도와 토지 소유 상태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석장둔 인근 간척지는 바다와 구릉에 둘러싸여 있고 경작지 대부분이 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사료가 풍부하여 1910년대 소유 상황을 확인하기에 용이한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해당 지역 토지의 과세 가격과 비옥도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했고, 서울 거주 부재지주가 면적 기준 간척지 내 토지 과반을 소유하고 있음을 규명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특히 당대 권력자인 순헌황귀비 엄씨가 영역 내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더 비옥한 땅을 소유했음을 확인했다. 간척지가 아닌 인근 지역과 비교할 때, 이처럼 토지 소유가 소수 지주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석장둔 인근 간척지의 독특한 현상이다. 추후 연구를 통해 석장둔 인근 간척지 소유주의 토지 소유 과정과 다른 간척지 사례의 비교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러한 토지 소유 양상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원식의 「1914년 경기도 군·면 통폐합 논의와 계획 수립: 시흥군 및 소재 면의 사례를 중심으로」는 1914년 경기도의 군(郡) 통폐합, 시흥군의 면(面) 통폐합 사례를 통해 당시 행정구역 통폐합의 계획 과정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통치 효율성 추구라는 조선총독부의 원론적 정책 목표를 넘어, 당국자들의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실제 통폐합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또한 어떤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 해명하였다. 경기도의 부·군 통폐합 과정에서는 호수와 면적 기준을 우선했지만, 총독부와 도 당국 간의 수정이 거듭되면서 점차 군청소재지의 입지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면의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된 면 통폐합 과정에서는 호수와 면적의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교통, 지형, 연혁, 관습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였다. 이처럼 면 통폐합은 군 통폐합 과정보다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었지만, 결국 면 재정의 안정화에

실패하였고 당국의 일방적인 통폐합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해 ‘탁상행정’과 같은 획일적 비판보다는, 조선총독부와 도 당국만을 중심으로 일방적 통폐합을 진행했던 과정의 한계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정민의 「1920~30년대 후반 소래 지역의 성쇠와 지역사회의 대응」은 일본 식민지시기 소래 지역의 성쇠에 주목하면서, 현재 시흥시가 북부의 소래권과 남부의 정왕권으로 ‘정체성·중심성’이 나뉘게 된 연원을 규명하고자 했다. 일본 식민지시기 소래 지역은 행정구역상 부천군 소래면으로 편제되었으며, 뱀내장터와 소래포구 등의 상업 중심지와 농업을 사회경제적 기반으로 했다. 소래면은 농·상업적 기반을 토대로 부천군에서 다수 인구를 보유한 지역이었지만, 1930년대 후반 경인지역이 군수공업지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소외되었고 각종 인프라 시설도 부천군 소사면, 부내면에 집중되었다. 이에 소래면 지역사회는 금융조합 및 전등 설치, 사방공사 등 각종 인프라 지원을 도·군 당국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끝내 이러한 ‘개발’에 포함될 수는 없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소래 지역의 성쇠가 하향식 ‘개발’에 따라 지역의 위상과 기능이 변화한 전형적 사례임을 조명하였다. 또한 일제시기 소래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해방 이후 시흥시에 편입된 군자·수암면과 차이를 보이면서 시흥시 북부와 남부의 ‘단절’의 기원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홍수현의 「1970~80년대 ‘사회의학’의 실천과 신천연합의원의 설립」은 197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 학생운동 단체로 출발한 사회의학연구회(사의연)를 중심으로 1970~80년대 ‘사회의학’의 실천 과정을 조명하였다. 사의연은 의학 및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의학’을 표방했다. 이들은 ‘사회의학’을 ‘지역사회의학’과 구별하면서 저항과 현실변혁운동의 의미로 인식했다.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자 사의연 조직은 지하화했지만, 노동자·농민·도시빈민 등 ‘민중’을 위한 의학으로서 ‘사회의학’에 대한 지향은 계속되었다. 1980년대 들어 사의연은 현실에서 사회의

학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이는 1986년 신천연합의원 설립으로 이어졌다. 신천연합의원은 복음자리 도시빈민운동과의 연계 속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여타 '사회의학' 의료기관과 보건의로 운동단체들을 지원했다. 이 글은 신천연합의원이 1980년대 말 이후 사의연의 조직적 구심점으로 기능하지 못했지만, '사회의학'이 1970~80년대 한국의 실천적 보건의료계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실체화되었던 양상을 뚜렷하게 드러냈다고 보았다.

이동원의 「1970~1980년대 시흥지역 도시빈민 운동의 성장과 진화」는 복음자리 마을, 한독마을, 목화마을로 이어진 시흥지역 도시빈민 정착공동체 운동의 성장과 진화 과정을 조명하였다. 이 운동은 서울의 과잉 도시화와 대규모 빈민 주거지 형성, '비가시화' 방식의 졸속적 철거민 정책이 만들어낸 빈곤의 악순환에 대한 대안적 주거 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시흥지역의 도시빈민운동은 비공식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되었던 대부분의 도시빈민 운동과 달리 종교계와 외원(外援)단체 등의 지원을 받으며 초기부터 일정하게 공식적 성격을 띠었고, 제정규와 정일우의 주도하에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집단적 정체성이 확장되었던 보기 드문 사례였다. 세 마을의 '공동체성' 형성 과정은 시기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다양한 갈등 요소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 글은 이들 세 마을 사이에 철거민, 이주민이라는 정서적 공감대와 유대감이 작동했고, 따라서 주민들은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음자리 공동체와 복음신협, 작은자리 회관을 구심점으로 점차 '하나의 지역 공동체'이자 도시빈민 운동, 시민운동의 '주체'로 진화해 갔다고 주장했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대로 필자들은 집담회와 학술대회를 거치며 각자의 문제의식과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공유했고,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시흥의 근현대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성찰하고자 했다. 특히 인문도시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지역학 자료와 인적 네트워크가 새로운 사료와 시각에 기반하여 지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상의 글들이 글로벌-국가-로컬 단위를 중층적으로 이해하는 다중 스케일 수준의 연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과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시흥시는 앞서 지적한 대로 서울의 급속한 팽창과 위성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의 이합집산으로 탄생한 도시이며, 그 자체가 시흥시만의 독특한 지역성을 구성해 왔다. 이번 기획의 여섯 편의 논문들이 일부나마 포착한 그 독특한 지역성과 역사상이 향후 시흥시의 지역 정체성 형성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동원

